

칸트哲學과그에對한考察(一)

李相殷

筆者는 아즉 칸트哲學에 對해서 初學이다. 이글은 以前 北京大學 哲學科에 잇슬 때에 『칸트哲學』課程의 平時 論文으로 쓰엿든 것을 茲에 □□(原文은 中國文)하는 것인데 그것이 本題가 適當히 가져야할 內容을 가지엇는지 筆者로서도 疑心치 안을 수 업다. 期界 先輩와 同好諸君의 指正과 □□을 기다리는 배다.

第一章. 緒論

칸트는 그의 三部 哲學者 作을 命名함에 잇어서 모다 『批判』(Critique)一字를 一使用하였스며 後人이 그의 哲學을 할桶재에도 모다 『批判哲學』(Critical Philosophy)이라고 부르나니 이로써도 칸트哲學의 精神이 어데 잇는지를 可히 알수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칸트哲學의 根本精神은 『批判主義』이다.

批判主義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爲하야 우리는 먼저 칸트以前의 哲學을 大畧 回顧하여 봄이 必要하다. 칸트以前의 哲學은 唯理論(Rationalial)과 經驗論(Enpericisl)이 天下를 平分하고 英雄을 닳토든 局面이엇나니다. 톰의 由來는 當初 知識의 來源 問題에 잇섯다. 唯理派는 말하되 知識의 來源은 理性이다. 理性은 自身이 一種의 先天的 觀念, 或은 思考의 法則을 가지엇나니 이런 觀念, 或은 法則에 依하야 理性은 經驗을 기다리지 안코도 여러 가지 必然的(Necessary) 쏘는 普遍的(Univalsal) 知識을 엇을 수 있다. 모든 經驗은 吾人의 感覺으로부터 엇는 것인데 吾人인의 感覺이라는 것이 原來 밋지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經驗的 知識은 眞正한 知識이 되지 못한다. 眞正한 知識은 오즉 理性的 知識이다. 純粹한 理性(Pnrereasol)을 通하야서만 絶對的 認識을 達할 수 있다. 唯理派의 이런 說法은 드되여 理性萬能說에 흘렀 理性을 無所 不知의 것으로 看做하게 되엇다. 그리하야 結局 唯理的 形而上學(RationalLetaphysics)을 構成하였나니 所謂 靈魂이니, 上帝니 모다 이 理

성이 차저낸 것이며 『세카-트[데카르트]』의 『神』이라든가 『라이부티츠』의 『調和的 宇宙』(HarloniUnivesseous)라는 것도 모다 이러케 理性이 맨드러낸 것이다.

이에 對하여 經驗主義者는 말하되 이것은 넘우도 武斷이다. 이야말로 理性의 觀念的 遊□에 不過한 것이지 어데 眞正한 知識이라 할 수 있는가? 所謂上帝라 靈魂이라하는 것을 누가 일즉 보았든고? 證據를 내노으라!』 그 實 우리의 知識은 感覺-卽 經驗에서엿는 것이니 經驗이 업시는 知識은 絶對로 不可能하다. 우리의 『心』은 本來한 張의 白紙요, 所謂 先天的 觀念이라는 것은 업는 것이다. 오즉 經驗에 依해서만 白紙우에 비로소 宇□이 그리어진다. 비로소 認識이 생긴다. 밧귀 말하면 『心』은 被動的의 것이오, 能動的 이 것이 아니다. 그것은 經驗이 주는 知識을 接受할 뿐이오, 自己로서 知識을 『生産』, 或은 『創造』하는 것이 아니다. 經驗派의 이 說法은 그 極端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휴-口』의 懷疑論(Skepticirl)에 到達하였다. 懷疑론은 卽 知識의 可能性을 根本的으로 否認하는 것이다.

知識論에 잇서서뿐만 아니라 道德論 □美的에 잇서서도 이 두 派의 爭論依然히 마찬가지다. 道德論에 잇서 經驗派는 感□, 或은 感性(Sensibility)을 注軍한다. 感性의 要求하는 바는 快樂이 매우 幸福이다. 그럼으로 道德의 目的은 卽 사람으로 하여금 快樂과 幸福을 엿게 함에 잇다. 이것을 갈오대 『幸福說』이라 한다. 이와 反對로 唯理派는 理性을 注軍하기 새문에 純全히 理性의 要求에 依하여 個人의 發展을 究成함으로써 道德의 目的을 삼고 幸福與否는 도라보지 안는다. 이것을 갈오대 究成說이라 한다. □美□에 잇서서는 하나는 純全히 興趣(Interest)로써 主要目的을 삼고 하나는 純全히 道德觀念의 表現으로써 主要目的을 삼아서 서로 對峙하게되엿다. 要컨대 唯理論과 經驗論은 處處에서 衝突되야 各各 그 所是를 是라하고 그 所非를 非라하여 一個의 普遍的 標準이나 必然的 原理를 볼 수 업섯다.

칸트는 이 混亂한 情勢에 對하여 不滿을 품고 그 徹底한 解決을 求하기 爲하여 드디어 批判主義를 倡導하게 되엿다.

原來 唯理論과 또 經驗論의 싸흠은 一個理性에 對한 信任與否의 問題이다. 하나는 그것을 絶對로 信任하라고 하고 하나는 絶對로 信任치 안으라 함에서 싸흠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 依하면 이 난 兩使이 모다 쪽가튼 □誤를 犯한 것이니 워 그러냐하면 理性을 信任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만저 理性 本身이 大體 엿던 물건인가? 卽 그것은 무슨 能力을 가졌스며 그것은 엿던 일을 할 수 잇고 엿던 일을 하지 못하는가--를 檢討하여 본 뒤에라야 解決지을 問題인 까닭이다. 이 理性 本身에 對한 檢討도 업시

理性을 信任한다 못信任한다 하는 것은 結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장님과 그 다리를 만져본 장님과의 言爭에 不過할 것이다. 그럼으로 唯理波이든지 經驗派이든지 누구를 勿論하고 만저 이 基礎的 研究부터 하지 안으면 안된다. 이 基礎的 研究업시는 모든 것이 모다 根據업는 理論이 되고 만다. 批判主義란 다름 아니라 卽 이 모든 理論의 基礎되는 理性 本身부터 檢討하자는 主張이다. 칸트哲學의 特徵이 다른데 잇는 것이 아니다. 卽 이 理性 本身을 分析批判한데에 잇다.